



미국, 스타벅스 모든 매장 재생컵 재활용 2015년까지 사용 의무화

스타벅스가 재활용컵 사용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미국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재활용컵 사용 비중을 크게 높인 뒤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매장에서 재생용지로 만든 컵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미국 CNN머니는 구랍 1일 “스타벅스가 친환경 정책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전 세계 매장에서 한 번 사용한 종이컵을 재활용해 만든 재생컵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스타벅스는 2006년부터 재생용지로 만든 종이컵을 써왔지만 이들 컵 대부분이 사용 후 휴지통에 버려지면서 재활용 방침이 한계에 직면

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는 종이컵 재활용률을 1백%로 끌어올리기 위해 매장에서 버려진 종이컵을 원료로 만든 신형 재활용컵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스타벅스가 이미 재생용지로 만들어진 종이컵을 또다시 신형 종이컵 원료로 사용하는 이중 재활용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 제지업체인 미시시피리버펄프와 인터내셔널펄프가 제지기술을 발전시킨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재활용컵을 또다시 재활용해 종이컵을 만들더라도 비용이 적게 들고 내구성도 뛰어난 종이컵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내년부터 미국 주요 도시 내 매장을 중심으로 신형 재생 종이컵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EU, 유아용 병 '비스페놀 A' 사용 금지 6월부터 판매 및 수입 금지

유럽연합 EU가 올해부터 플라스틱 유아용 병에서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구랍 26일 EU는 비스페놀 A가 발달과 체내 면역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암 진행도 유발할 수 있는 바 올해년부터 유아용 플라스틱 병에서 이 같은 물질 사용을 금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2011년 3월부터 비스페놀 A를 함유한 아이들 폴리카보네이트 우유병 제조가 금지되며 6월부터는 판매와 수입 또한 금지된 다라고 EU 관계자는 밝혔다.

日, 도레이 LCD 반사필름 한국서 생산 월 3백만㎡ 규모

일본 도레이가 올해부터 한국에서 LCD(액정 표시장치) 핵심 소재인 반사필름을 생산한다.

구랍 10일 업계에 따르면 도레이는 이달부터 한국 내 투자회사인 도레이첨단소재의 경북 구미 공장에서 LCD용 반사필름을 생산할 계획이다.

공장 신설이 아닌 기존 범용 필름 공장을 개조하는 방식이다. 생산량은 월 3백만㎡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 6백만㎡의 생산능력을 가진 도레이가 해외에 LCD용 반사필름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것은 처음이다.

반사필름은 LCD 패널 램프 뒷면에 부착, 빛을 안쪽으로 반사시켜 광(光)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LCD TV와 소형 노트북,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면서 반사필름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日, 단납기와 가공기술로 금형 시장 공략 금형 시장 경기 개선

일본 금형업에는 20인 이하 업체가 전체 88%를 차지하는 등 비교적 소규모 업체들이 많다.

나고야KBC 관할지역인 아이치현이 일본전국 금형생산에서 1위를 차지하며, 특히 자동차용 금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금형제작까지 사전 협의(일본어로 우치아와세)가 많아 의사소통이 큰 장벽이 되고 있어 한국의 금형업체 중 일본 기업과 거래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기업에는 대부분 일본어 구사자들이 있으며, 홈페이지 및 회사 소개서를 일본어로 작성하는 곳이 많다.

한국에 거점이 있는 일본 상사들은 금형 메이커나 자동차, 전자부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많으며 조달업무를 일본본사에서 하고 직접적인 거래는 한국지사에서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한국에서 제3국의 해외공장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 소재 상사를 통해 금형을 수출하는 경우도 있으며 국내 금형업체들이 일본에 영업소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 금형업체는 9명 이하의 소기업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비용·납기·기술적인 문제로 해외수입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 기업체 특성상 신중하게 검토해 거래를 시작하기 때문



에 첫 거래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지만 한번 신용관계를 맺어 거래를 시작하면 장기간 거래하는 경향이 있다.

성형 양산업체가 한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A/S문제가 제일 큰 장벽이 되며, A/S가 가능한 일본 업체와 동시에 거래하는 경우도 있으며 국내에서 사출까지 완료해 제품으로 납품되는 경우도 많다.

일본 내에서 전년 대비 금형시장 경기는 개선되고 있다. 일간공업신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문이 늘고 있다”가 전체의 33.6%(전년 대비 4.3%) 37개 사로 2010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 그러나 전체 66.4%(73개 사)가 “주문이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해 본격적인 회복에는 이르지 않았다.

리먼쇼크 이후, 양산업체는 신규 금형발주를 줄이고 기존금형을 수리·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set금형이 아닌 소량의 금형부품, core가공이나 밀핀가공 등 부품가공을 해외에 의뢰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도면이 없는 금형부품을 재생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금형업체, 금형 수명을 크게 연장하는 기술을 개발한 금형업체, YAG 레이저 용접기를 도입해 대응력을 강화시킨 금형제조사 등 각 사 기술·노하우를 연구하고 있다.

양산업체들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며, 금형 수요업체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형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 또한 급증하고 있다.

ECO Car 보조금이 끝나면서 자동차용 금형 수요가 줄고 있지만 빠징코금형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업체는 국내 대기업과의 거래실적보다 일본 업체와의 거래실적을 더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본기업은 첫거래를 시작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지만 한번 거래를 시작하면 큰 실수가 없는 한 장기적으로 거래하려는 경향이 있다. 일본에 수출하는 국내 업체는 중국 등 제조단가가 낮은 해외 업체와의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며,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정밀금형으로 일본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지리적 이점을 살린 단납기 대응으로 일본 시장 진출을 시작하는 업체들도 많으며, 시작금형 등 초단납기제품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안정적으로 고품격 금형소재를 자국 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 또한 일본 진출의 큰 장점으로 적용될 수 있다.

美, 바이오 베이스 화학제품 개발 육성

미래 먹거리시장 바이오 베이스산업 투자 필요

과거 미국의 화학 및 플라스틱산업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미국 화학 및 플라스틱산업이 최고조에 달하던 1950년대에는 약 5백만 개의 일자리와 2백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미국 화학산업은 미국 제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일인당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지난 20년간 미국 화학 및 플라스틱산업은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고 현재에는 중국을 위시

한 아시아 국가와 중동 국가들에 의해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화학산업의 위상이 크게 위축됐고 지난 2001년부터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화학 및 플라스틱산업 위축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향후 미국 기업들의 미국 내 석유화학기반 산업의 자본투자가 줄고 해외투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미국 화학 플라스틱산업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 약화로 중국과 한국 일본 등 외국인산 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며, 이런 추세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화학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바이오 베이스 화학 및 플라스틱산업 높은 경쟁력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오 베이스 화학산업으로 과거 영화를 찾기 위한 재도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바이오 베이스 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은 석유 기반의 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미국이 이러한 트렌드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한다면 다시 예전의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바이오 베이스 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했다.

미국은 세계의 바이오기술을 이끌어가는 선진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바이오 베이스 제품을 새롭게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바이오 베이스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의 기반이 되는 농업분야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 다른 큰 장점 중 하나이다. 또한 단일 국가 중 가장 화학 및 플라스틱 관련 시장을 확보하고 있어 제품 개발에서 생산 그리고 판매에 높은 시장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미국 바이오 베이스 제품 산업은 지난 2007년 기준 약 5천7백명의 고용 인원을 기록하며, 매년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올해 약 4만 개의 일자리 규모로 성장했다.

아직 바이오 베이스 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을 기록하지만 오는 2025년에는 약 20%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바이오 베이스산업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정책이 선행돼야 하며 혁신적인 바이오 베이스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 등의 다양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바이오 베이스제품은 석유자원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동일한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바이오 베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연료 개발 프로젝트와 같은 다른 차세대 기술개발 자금 지원과 비슷한 유형의 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향후 바이오 베이스 제품들은 미국 경제 성장과 미국의 화학과 플라스틱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이오 베이스산업 육성은 미국의 그린 일자리 창출과 탄소배출 감소 그리고 해외 석유자원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산업이다. ☐